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November No.118

작성기준일 : 2026년 10월 31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1454호(2026.11.06.~2027.11.05.)

NH-Amundi자산운용

Contents

시황 및 추천펀드

· CIO 칼럼
·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CIO 칼럼

AI가 바꾸는 자본시장 지도

이제 AI는 더 이상 주식시장에 국한된 투자 테마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국채 수급과 금리, 나아가 자산군 간 상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자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는 단순한 성장 테마를 넘어 자본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이자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AI는 수익 기회이자 자본수요 재편 요인

AI 인프라 투자는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등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2026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 재원 역시 기업의 내부 유보현금에서 유상증자와 채권발행 등 외부조달방식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관련 기업과 사모펀드 프로젝트가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의 비중은 미국 회사채 벤치마크 내에서 지난해 말 5.4%에서 8.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AI의 발전과 도입은 관련 기업의 주가와 실적에 긍정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부담과 신용 스프레드 및 가격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AI 투자 확대는 주식시장에는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시장에는 새로운 공급 부담을 가져오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여전히 핵심 자산인 국채, 그러나 달라지는 수급 환경

최근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는 미국 국채 투자의 성격이 기존의 '안전(Safety) 프리미엄'에서 '흡수(absorption) 프리미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국채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채 발행 물량을 시장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AI 관련 기업들의 채권 발행 확대 역시 투자자 구성 변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은 130bp 수준까지 확대됐으며,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도 2013년 약 50%에서 최근 3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공백을 레버리지 기반 헤지펀드 등 단기 투자자들이 채우면서 향후 자금시장 경색 시 국채시장 변동성 급증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AI 익스포저는 한 방향이 아니다

현재의 AI 붐을 닷컴 버블과 동일한 현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과 산업에서는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투자가 집중되면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센터 공급 병목이 완화되고 오픈소스 확산 등을 통해 AI 모델의 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투자 수혜의 중심이 인프라 제공 기업에서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더 이상 기술주라는 단일 섹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AI 인프라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AI 인프라, 크레딧, 주도기업 등 주식·채권·대체투자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대에 진입하면서 AI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등급 회사채는 물론 데이터센터 파이낸싱과 사모대출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높아진 자금 조달 위험을 반영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과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중복 노출도와 분산투자

기존의 AI 관련 주식 포트폴리오 뿐 아니라 채권과 대체투자에서 AI가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함께 고려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AI 중복 노출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의 자본지출, 국채 및 회사채 발행 규모, 장기금리, AI 관련 크레딧 이슈 등을 하나의 연결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주식·채권·대체투자 각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여러 자산군에 분산된 포트폴리오라도 동일한 리스크 요인에 같은 방향으로 반응한다면 실질적인 분산투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상관관계 리스크입니다. 투자자의 과제는 AI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드는 자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고 주식·채권·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관통하는 익스포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서진희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 총괄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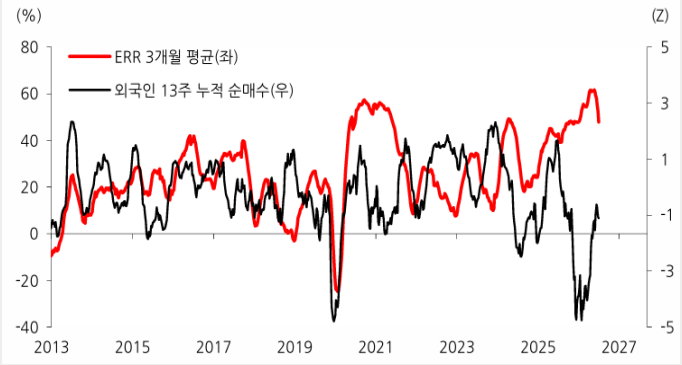
시장 전망

10월 KOSPI는 17.54% 하락했습니다. (10월 27일 종가 기준) 프랑스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유가 및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더해, 'CoreWeave' 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수 하락 압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 랠리를 기본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 가능성을 약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관세 정책을 통해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 주도의 의회 구도에서는 전력 및 인프라 수요가 큰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환경 규제 및 인허가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관세 정책과 AI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핵심 밸류체인 전반에서는 견조한 실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TSMC, SK 하이닉스, ASML 등 주요 기업들은 2028년 이후의 업황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중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의 MUSE 공개 이후 부각된 '클라우드 실행 세션' 수요가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반도체 산업의 이익 성장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페이스X 사례를 통해 확인된 1년 미만의 빠른 네오클라우드 투자 회수 기간은 CoreWeave 등 관련 기업을 둘러싼 자본 조달 및 수익성 우려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 정점 통과 가능성



* 출처: 한화투자증권 (ERR은 KOSPI 200 구성종목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기준 3개월 평균, 수급은 KOSPI 13주 누적 순매수대금 3년 표준화)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산 업 예 시

- 인공지능 인프라
- 원 자 력
- 방 위 산 업
- 조 선
- 신재생 에너지
- ESS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 포착

주주가치 재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중복 상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배당 분리 과세에 따른 수혜 기대



주주친화적 기업의 재평가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펀드 정보]

총보수(연)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기준 - 연1.550% (집합투자업자 0.90%, 판매회사 0.620%, 신탁업자 0.020%, 일반사무관리 0.010%), 설정 1년 미만 상품으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미기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기준 - 연1.930% (집합투자업자 0.90%, 판매회사 1.000%, 신탁업자 0.020%, 일반사무관리 0.010%), 설정 1년 미만 상품으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미기재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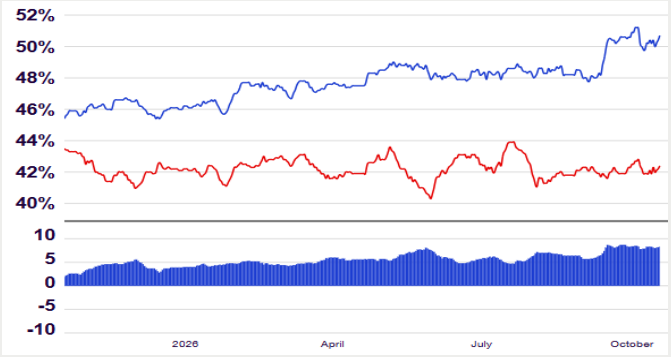
10월 금리는 국채 발행 축소에 따른 수급 여건 개선 기대와 美 금리 하락,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및 내년 물가 전망의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만장일치 동결과 선제적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여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시장에는 중립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월 하순에는 대외금리 하락세까지 더해지며 국내 금리의 하락 폭이 확대됐습니다. (10/22일 기준 국고5Y 전월 말 대비 -23.1bp)

11월 금리는 성장 및 물가 전망 상향과 추가 금리 인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급 여건 개선과 AI 투자 관련 자금 조달 부담 및 민간부채 건전성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면서 하락 우위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할 경우 AI 투자 관련 규제 및 제약이 강화될 가능성도 금리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금통위는 견조한 수출 흐름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합니다. 다만 수출 호조가 내수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내년 1분기 한 차례 추가 인상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1월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이후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이란 갈등이 격화되거나 국제유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지지율 추이



* 출처 : Real Clear Polling (푸른색 선은 민주당, 붉은색 선은 공화당 지지율을 나타냄)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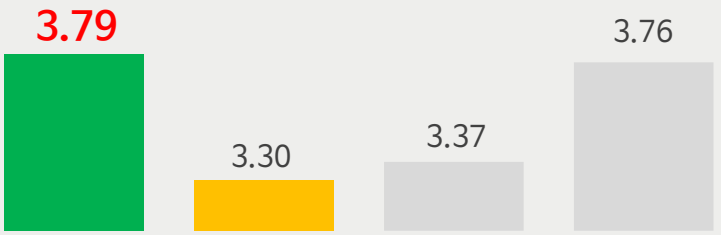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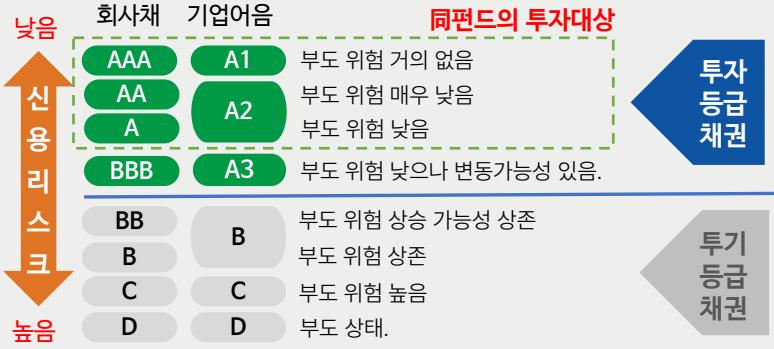
1.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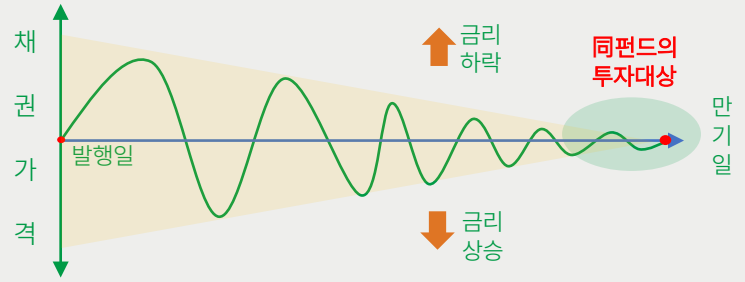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6년 7월 31일 기준)

2.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3.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합성총보수(연)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기준 - 연0.3039% (집합투자업자 0.075%, 판매회사 0.20%,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 0.01%, 기타비용 0.0089%), 직전 회계 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36% 발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기준 – 연0.4039% (집합투자업자 0.075%, 판매회사 0.30%,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 0.01%, 기타비용 0.0089%), 직전 회계 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36% 발생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10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9월에 이어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분쟁이 격화되며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10달러 위로 급등하였으며, 월 초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35% 이상으로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AI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 우려와 반도체 주가의 하락과 더불어 조정을 받았고 특히 한국 등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란-미국 전쟁 상황에 따른 높은 유가, AI 관련 기업의 CDS 금리 상승,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대규모 자본적 지출(CapEx)에 대한 우려, 10월 FOMC에서의 케빈 워시 의장 발언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에너지,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등 방어적 성격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하락 폭은 제한되었습니다. AI 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금리 상승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진 점은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나 앤트로픽이 상장 심사 신청서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주면서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고, 월말에는 낙폭이 컸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악재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기술적으로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주요 기업의 실적과 CapEx 전망,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및 10월 FOMC 이후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후 반등중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 출처: Yahoo Financ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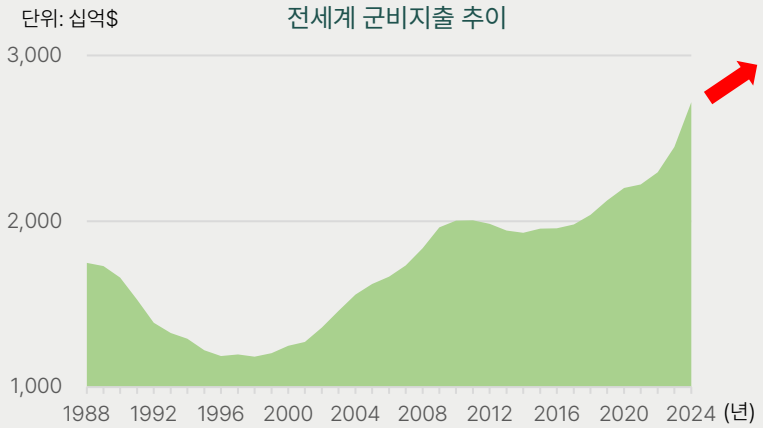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합성총보수 · 비용(연)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253%
(집합투자업자 0.80%, 판매회사 0.70%, 신탁업자 0.06%, 일반사무관리 0.02%, 모펀드 비용 0.0391%),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693%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발생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U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235%
(집합투자업자 0.80%, 판매회사 0.70%, 신탁업자 0.06%, 일반사무관리 0.02%, 모펀드 비용 0.0413%),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743%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발생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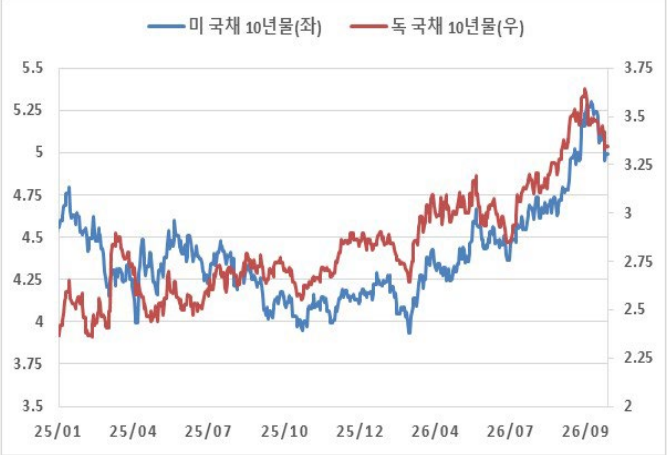
시장 전망

10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Capex 하이퍼사이클 지속과 재정 적자 우려에 따른 프랑스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국가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10월 중순 발간된 가트너보고서에서 네오 클라우드 업체의 높은 부채비용과 AI 사용량 성장률 둔화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며 안전자산 선호로 실질금리 위주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정부의 확대된 재정에도 높은 물가 및 낮은 공공시설 만족도 등으로 시위가 격해지며 금리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10년 -31bp, 독 10년 -23bp, 프랑스 +6bp)

11월은 월초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며 10월의 높은 변동성이 다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이나 이미 연내 통화 긴축 기조가 상당 부분 선반영 되어 있어 금리의 급격한 오버슈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이슈가 된 AI Capex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민주당이 AI에 다소 부정적인 기조를 가지는 부분은 선거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USD 초단기채권 펀드(UH)입니다. 금리 리스크가 적으며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원-달러가 1320원대에 안착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내 상승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Bloomberg

추천 펀드

1 2 3 4 **5** 6
5등급(낮은위험)
하이브리드채권(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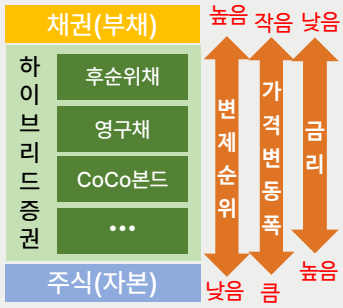
1 2 3 **4** 5 6
4등급(보통위험)
하이브리드채권(UH)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자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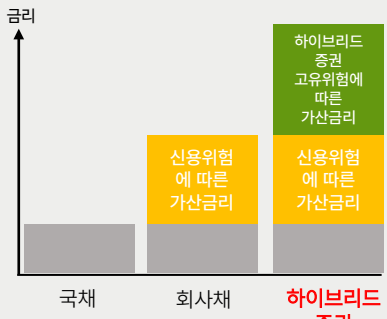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하이브리드증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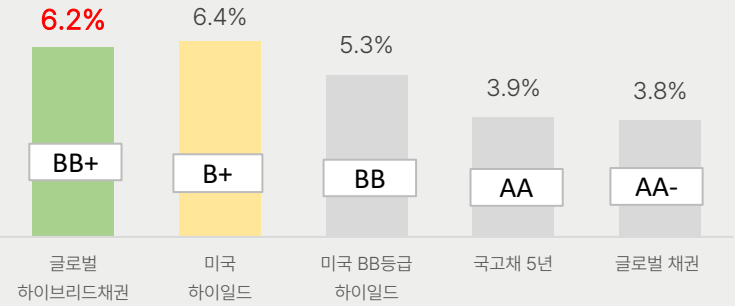


하이브리드증권 금리 예시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2026년 5월 31일 기준 채권(B+) YTM은 환헤지 후(유로/원 +0.59% 달러/원 -0.91%) 수치
*출처: NH-Amundi자산운용㈜,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프랑스 전력공사	도이치 뱅크
	
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	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 : BBB+(S&P)	신용등급 : A(S&P)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합성총보수 · 비용(연)

글로벌 하이브리드채권 증권자투자신탁(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422%
(집합투자업자 0.40%, 판매회사 0.50%,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072%, 모펀드 비용 0.69%),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0%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 금액의 0.8%이내 발생 가능

글로벌 하이브리드채권 증권자투자신탁(U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365%
(집합투자업자 0.40%, 판매회사 0.50%,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015%, 모펀드 비용 0.69%),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0%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 금액의 0.8%이내 발생 가능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와 자료 내 포함된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성 종목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 가치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 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NH-Amundi자산운용